

갈라디아서 5장을 중심한 생명의 기쁨

- 작성일: 2010년 7월 15일 (목) 새벽
12:20~2:00

- 작성자: 정은별

너무나 부족한 인생 가운데 생명 구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하나님과 주님께 감사 기도하였습니다.

그 때, “생명의 기쁨. 생명의 기쁨”음성이 들렸고, 갈라디아서 5장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묵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하여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 하나님 말씀 *

(갈라디아서 5:16-26) 『[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19]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생명의 기쁨. 생명의 기쁨!

오직 나에게 만이다.

그 기쁨 나로 인한 기쁨이고

나에게만 주어야 할 기쁨이니라.

네 생명이 나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고 낳아진바 되었으니

모든 생명은 나의 것이요, 나의 기쁨이로다.

나의 기쁨이 되니 너의 기쁨이기도 하다.

사람은 유전자로 생명이 만들어진다.

뜨거운 사랑으로 생명이 만들어진다.

극적 사랑의 기쁨과 희락의 단계에서 생명이 생성된다.

이렇게 생성된 좁쌀만 한 생명의 씨가 태어나서

사랑으로 길러지고 정성으로 키워진 바

때가 되어 지상의 삶으로 전환되어

모태에서 벗어나 지태의 삶을 살게 된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모든 생명에게 영을 주어

모태에서 사랑과 정성으로 길러지듯

지태에서 자기 영을 사랑과 정성으로

기르고 관리하게 한 것이다.

어미의 육신에 좁쌀만 한 씨를 심듯

인생의 육신에 각자의 영을 심어

나 여호와와 뜻대로 살게 하여

내 나라 영의 세계에 오도록 창조하였다.

창조의 본향, 영혼의 본향, 사랑의 본향 천국이다.

기쁨의 세계이며 생명의 세계이다.

사망과 고통의 세계로 가는 것은

나 여호와와 뜻이 아니니라.

나의 본뜻은 사랑의 구원이다.

온전한 사랑으로서의 구원이니라.

(예레미야 애가 5:7) 『[7]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와 같이 무지로 인하여

나의 창조의 뜻, 사랑의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무지한 인생의 욕은 죽고 없어졌으나

전도서 1장 4절 말씀과 같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그 땅은 영원하니,

그 후손들이 그 땅의 유업을

그대로 받고 살아가게 되듯이

인생의 죄악이 후 세대까지 미쳐

그 죄악들까지도 후손들이 담당하게 되느니라.

영적 범죄함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이치이니라.

그러하니 이 시대의 때,

마지막 때 온전히 회개하며

생명으로 나아오지 못하면 ‘다시’란 없느니라.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생명으로 나와야 한다.
전 세대로부터 받은 죄악과
이 시대의 죄악으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개인과 가정과 민족, 이 지구촌이
생명으로 나아와야 하느니라.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생명의 사업을 해야 함이 이치가 아니겠느냐.
‘이와 같이 이러함’의 원리이니라.

또한 청산할 것은
하루라도 속히 청산해야 속이 후련하지 않겠느냐.
더러운 것을 지니고 있으면 냄새가 나고 찝찝하듯
이
죄도 그와 같으니 개인, 민족, 지구촌의 것도 청산
하여 생명으로 나아오라.

(전도서 5:15) 『[15]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
왔은즉 그가 나온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
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와 같이 네가 모태에서
아무것도 지니지 않고 나옴과 같이
네 육신의 기한이 되어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아무것도 지니지 아니하고
그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영의 세계로 가나니
네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에
갈라디아서 5장과 같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며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것을
경계하며
오직 나 여호와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성령을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
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곧 생명의 법칙이요, 이치니
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곳에, 이러한 자들에게 생명의 열매가 맺는
다.
생명의 결실이 난다. 알겠느냐.
너희를 진정 사랑하여 나의 말을 전하느니라.

(전도서 3:11-15 『[1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
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12]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
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
았고 [13]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
았도다 [14]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
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 것에
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15]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와 같이 나는 모든 인생위에
나 여호와와 천국의 세계,
영원의 세계를 사모함을 부어주었으니
너희는 시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함으로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지어다.
이로서 너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영육의 축복이 너희에게 임하며
세세토록 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리라.
충만한 사랑이 네 영혼을 덮으리라.
사랑하고 사랑하여 하는 말이니
잘 새겨들을 것을 믿는다.
사랑한다.

내 사랑의 섭리 신부들. 안녕.

(이어서 하나님께서 코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께 전하신 말씀입니다.)

* 하나님 말씀 *

너희 선생에게 나의 위로의 말을 전해 주어라.

또한 이것을 너의 신앙 고백으로 삼아라.
지금의 때에 합당한 말이니라.

(전도서 4:13-14) 『[13]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14]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의 힘이 되신,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